

W\_F\_705

## 다슴어멍의 심술

2019년 10월 17일, 서귀포시 대천동(강정동) 강정마을경로당, 문순덕 · 김은정 조사.  
고정열(1937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 서귀포시 호근동 출생으로 20세부터 현재 63년째 강정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계모가 두 딸을 키웠는데 자신이 낳은 딸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의붓딸은 먹을 것을 조금만 주었다. 자기 딸은 팥을 먹여 바짝 말랐고 의붓딸은 콩을 먹여 건강하였다. 의붓딸이 결혼하는 자리에 못생긴 자신의 딸을 대신 보냈다.

[조사자] 콩데기 팥데기 알아집니까?

[제보자] 다슴어멍이 잇인디 돌앙 온 뜰하고 어멍 내쫓아 부난 이녁 돌아온 뜰 잇이난 아방 뜰은 쓸 혼 방울만 주고, 이녁 뜰은 막 하영 주고.

[조사자] 밥을예.

[제보자] 당신 난 뜰은 뜻 맥여부난 바쪽 모르고, 아방 뜰은 콩 맥여부난 막 건강하고. 아방 뜰은 곱닥하고 이녁 뜰은 궂이난 아방 뜰이 시집갈 건디 이녁 뜰을 바꾼 거라. 궂어부난 못 보낸 거주.

• 핵심어: 다슴어멍(의붓어머니), 뜰(딸), 콩, 뜻(팥)